'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우리공화당 등 4개 정당 제주 전역 80여개 게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현수막에 대응" 밝혀 유족회 "진실을 왜곡·폄훼하며 유족에 상처 줘"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목전에 두고 제주 전역에 제주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 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파문이 일 고 있다.

21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 거리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힌 현 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은 우리 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 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 다. 게시 기간은 4·3추념식 하루 뒤 인 내달 4일까지다. 이 현수막은 현 재 제주시청을 포함해 제주 전역 80여곳에 게시된 상태다.

자유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내건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국 회의원이 '제주4·3사건이 북 김일 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 언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곳곳 에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 다"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 수막을 준비했다. 4·3에 의해 무고 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촉발 원인 등 역사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도 "제주4·3 은 '5·10 선거를 막기 위해 적극적 으로 활동하라'는 김일성 등의 지 령을 받아 남로당이 일으킨 것"이 라고 주장했다.

제주4·3유족회는 이들이 내건 현 수막에 대해 "진실을 왜곡·폄훼하 고 있다"고 분노했다. 4·3유족회 관계자는 "오늘(21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 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민센터 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활동으 로 게시된 현수막이어서 철거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어 "유족들 한을 풀어줄 제75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있는 마 당에 우리공화당 등 4개 정당이 유 족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며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3.8 전 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 주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

된 만행"이라는 발언으로 제주 도 민사회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후 제주 정치권과 도내 4·3 단체, 제주지역구 국회의워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지만 태 의원은 후보직을 유지해 지난 8 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정부에 의해 발간된 제주4・ 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 고 있다. 김도영기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2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 '김일성의 공산폭동' 이라는 내용을 적은 제주4·3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상국기자

주택·차량 침입 금품 훔쳤다 붙잡혀

주택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잇따라 구 속됐다.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공사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 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여 층에 침입해 순금 귀걸이 3쌍과 손 목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동부서는 또 차량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B씨도 구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속했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아파트 신축 금 3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 B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4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뒤 되 팔아 현금화 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기자

"죄 없는 창건이 석방하라" 초등동창들 어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고 창건 전농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소위 제주간첩단 조작사건' 피 해자 고창건 친구들과 공안탄압저 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 는 죄 없는 창건이를 석방하라"고

이들은 고창건 사무총장의 초등

학교 친구라고 소개하며 "우리가 아는 창건이는 성인이 되고 줄곧 농사를 지으며 농민회 활동을 열심 히 하며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친 구"라며 "농사에 대한 열의가 높았 고 무농약 못난이귤을 출시했던 진 정한 농사꾼임을 우리 친구들이 자 부한다"고 했다.

이어 "항상 농촌과 농민을 걱정 하는 창건이가 간첩일 리가 없다. 검찰 수사를 빨리 종결해 창건이가 더 이상 조사받는 압박감에서 벗어 나 단식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간첩조작 중단과 석방을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제주4·3 전담 재판장 교체 후 첫 재심 "숙고해 판결문 남길 것" 선고 연기

검찰, 34명 전원 무죄 구형 재판부 "선고연기 양해 부탁" 유족들 "추념식 때 영전에 무죄판결문 못 바쳐" 아쉬워

"(내달 3일 거행되는) 제주4·3희생 자 추념식 때 큰아버지 영전에 무 죄 판결문을 갖다 바칠 수 있게 무 죄를 선고해주십시오."

제주4·3 재심전담 재판장 인사 이동 후 재개된 4·3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 형했다. 그러나 이날 유족들이 바 라던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동안 4.3재심 재판은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 구형 과 선고가 한꺼번에 이뤄졌지만 새 로 부임한 재판장은 "(무죄라는) 결론은 명백하지만 처음 맡은 4.3 재심 사건인 만큼 숙고해 판결문을 남기도록 하겠다"며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유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 (재판장 강건 부장판사) 심리로 21 일 열린 제25차 직권재심 공판과 유족들이 청구한 4.3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4명 모두에게 무죄 를 구형했다. 검찰은 "죄를 저질렀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 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심 재판을 받은 4·3 희생 자 대부분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죄 또는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 다가 사망하거나 한국전쟁이 터지 고 난 후 행방불명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한 맺힌 유족들 의 증언이 이어졌다. 고(故) 이정

우씨 며느리 김순자씨는 "시아버지 가 목포형무소에 수감되면서 어린 나이의 남편은 생년월일도 모르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살 았다"며 "형무소가 너무 춥다는 시 아버지 말에 시어머니가 한달 만에 뜨개질로 옷을 지어 형무소로 다시 찾아갔지만 시아버지는 없었다. 얼 마나 황망했겠는가"라고 울분을 터 뜨렸다. 김씨는 "남아 있는 사진조 차 없어 남편은 평소 '아버지 손가 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만지고 싶다'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 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 현덕홍씨 조카 현종훈씨는 "큰아버지를 잃은 한을 평생 품고 살던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 다"며 "이런 재판이 조금이라도 일 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 쉽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번 4·3추념식 때 큰아버 지 영전과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 니 영전에 무죄 판결문을 갖다 바 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 고 호소했다.

고 김병민씨 아들 김근우씨는 "4·3 당시 아버지는 폐병을 앓아 집밖을 나오질 않았지만 초등학교 에서 형수가 총 3발을 맞았다는 소 식을 듣고 치료를 위해 형수를 업 어 인근 병원에 갔다"며 "다음날 형수에게 덮을 이불을 가져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군경 의 총을 맞고 체포된 후 대전골령 골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증언했 다. 이어 "단 두번 집밖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잡혀가 희생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재심 사건에 대해 4·3추념식 다음날인 4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로수 충돌 운전자 숨져

제주시 한경면에서 차량 단독 교통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서 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10분쯤 제주시 한경면 두

모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 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 A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 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